

여성의 건강한 '삶의 전형' 창출

— 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여성문학의 현단계

I. 머리말

현단계 여성문학은 80년대에 이룩한 민족문학의 성과에 힘입어 본격적인 여성문학의 진화를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80년의 광주민중항쟁 이후 광복한 민족정신을 이룩한 민족민주운동은 필연적으로 부문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던 바 여성운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80년대가 거의 첫진출이나 다름없는 것과 같이 여성문학 또한 여러 여성작가들이 근대 민족문학사에 등장하였지만 예외적 존재를 빼고 나면 80년대 민족문학사에 와서야 어느정도 제 면모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문학의 작품적 성과나 논의수준 역시 일정하게 이에 따라 제약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성문학의 현 단계를 점검하는 일은 먼저 현재 여성문학이 도달한 이론적, 작품적 성과를 확인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의 민족문학사 전개 속에서 여성문학이 갖는 의미나 의의를 전망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II. 몸말

여성문학의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는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논의거리였다. 이때 먼저 문제시되는 것은 작가의 성별 문제였다. 바 지금까지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는 암암리에 여성문학을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환시시켜 연구하려는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문학, 농민문학의 개념규정에서 보여주

듯이 앞에 붙은 수식어는 작품이 형성화하려는 주제에 따라 붙여진 것인 바 여성문학 역시 여성의 현실, 다시말해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을 형상화한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어 자연 작가의 성별은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와 아울러 여성문학을 둘러싼 논의의 초점은 민족문화와의 상충관계로 여성문학을 민족문화의 하위범주로 설정할 때 둘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문제가 여성문학론에서 핵심적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여기서 나온 중심개념은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다. 즉 여성의 삶을 현실의 재관계 속에서 형상화할 때 어떤 시작에서 그리는가 하는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관철시키는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민족문화이 제계급간의 역량배치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지도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문학속에서 확립한다는 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여성문학 역시 이런 민족문학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한 부분으로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논의의 전제였다.

따라서 여성문학이란 여성이 처한 다양한 계급적 현실을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그린 것이어야 하며 이는 곧 정당한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는 데에까지 인식이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제 여성문학은 그중에서도 여성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노동자가 처한 계급적, 민족적 현실을 여성

의 특수한 삶을 매개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혜숙의 '송년잔치'이다. 농민의 딸이 건강한 노동자로 전향되게까지 의식의 각성을 주로 형상화한 작품은 본격적인 생산현장을 무대로 한 노동자적 현실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비록 계급적 토대가 노동자적이어도 여성의 문제에 여성문제 인식의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노동자 문제를 다룬 경우 여성적 삶이란 작품이다. 이와 더불어 정도상의 '새벽기

차'와 방현석의 '새벽출정'은 생산현장에서 여성노동자, 자본가와 대립하는 파업투쟁 속에서 여성노동자를 그린 작품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비록 구체적인 여성적 삶의 특수성을 세밀하게 포착해내지 못해 그들이 남성노동자로 바뀐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내용이지만 ('새벽기차'의 경우 미국인 지배인과 여성노동자간의 성적 관계부분이 묘사되긴 하지만 이는 이 작품이 반미투쟁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생산현장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그려보려는 점에서, 따라서 여성문제가 결국 민족민주운동과 평행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질적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임을 형상화

로써 범주설정되어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정지아의 '동자의 집'이나 방현석의 '내일을 여는 집'은 노동자 가정을 통해 비록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 삶 속에서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결국 노동자의 건강한 계급의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일상적 삶을 매개로 한 여성문제의 형상화한 점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

이상과 같이 최근 여성문학의 창작적 성과를 보여준 주요한 경향은 한마디로 말해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삶을 매개로 하여 여성노동자의 계급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맺음말

여성문학을 둘러싼 논의와 창작적 성과를 검토한 결과 갖게 되는 결론은 여성문학 역시 민족문학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하는 여성문학의 창작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야 할 사실은 노동자계급의 민족민주운동에서의 본격적 진출과 같이하는 노동문화의 출현과 함께 여성노동자를 주된 형상화의 과제로 삼고 있는 현단계 여성문학은 앞으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관철하면서도 보다 폭넓은 여성적 현실을 눈을 돌려 다양한 계 형상화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다양하게 나온 여성문학 중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이 견지된 작품으로 평할 만한 작품은 드물다.) 이렇게 될 때 여성문학은 여성문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으로서, 훌륭한 리얼리즘 문학으로서 커다란 성취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오 현 주

(연대국문과·박사 2기)

돌아오지 않는 기적소리

— 故 신장호군의 영전에

70. 9월 정릉대생
89 대유공전 입학
건축과 대의원
동아리, 어울림
기획부장 역임



나의조국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부릅니다. 무엇이 원동력이었는지 모르지만 19일 오후 1시 30분에 도착한 전경들의 검문대 앞, 민중은 이 좁은 공간에, 그제만을 주었습니까? 80년 5월 광주/그 때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투쟁이 나를 불러 열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열차는 독재타도하여/민중세상으로 달려가는 열차인 것입니다. (중략)

중화를 누누히 강조했고 '광주'로 내려가자'고 열심히 선전활동을 했던 신장호군은 19일 오후 1시 30분에 도착한 전경들의 검문대 앞, 민중은 이 좁은 공간에, 그제만을 주었습니까? 80년 5월 광주/그 때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투쟁이 나를 불러 열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열차는 독재타도하여/민중세상으로 달려가는 열차인 것입니다. (중략)

성남노동자문화회 창작집단이 고 신장호군의 영전에 바친 '그대는 달리는 해방열차'의 조지중 일부이다. 아버지를 여의고 파출부인 어머니, 형, 여동생, 남동생의 3남 1녀를 차마내던 고 신장호 군은 대유공전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인 노태우 아들에서 기획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원천봉쇄된 16일 국민연방 성남집회에서 가두시위를 하려는 작곡가를 보았었다.

고 신장호 군은 수많은 애국영웅들과 함께 광주항쟁을 목격했다. 조국통일과 인간다운 삶을 열망하던, 그것이 죄가 되는 척박한 이 땅의 현실. 다시는 피하지 않는 꽃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길...



故 신장호 열사
장례 집행위원장
이기현(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군과

대동제행사의 마지막인 경회각한마당으로 인해 바쁜 일정에 시달리고 있는 이기현 고 신장호(대유공전 2군) 장례 집행위원장은 "신장호군이 숨졌을 때 가족들에게 성남시청에서 2억을 제시하며 가족장으로 치를 것을 종용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신장호군의 장례식을 전대협장으로 치루어 내는데 동의해 주신 신장호군의 가족분들께 우선 감사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기현 집행위원장은 "신장호군은 확실한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정부와 원천봉쇄에 대응하여 전대협 출범식에 참여하려다가 불행히 당했습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후 전대협 출범식은 어느때보다도 엄숙했으며 숙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라며 당시장제식 분위기를 묘사했다.

"신장호군의 운구가 안치되어있는 전남대부속병원에서 전경들이 4번을 치고들어와 지하 영안실에 사파탄들을 던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의연히 적들에 맞서 싸운 남대협과 용성총련학우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한 이기현위원장은 "신장호군의 시신은 지난 23일 조산대를 출발해서 전남대를 거쳐 망월동국립묘지에 안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의 호응도는 놀랄만큼 높았으며 저희 용성총련학우들이 병원을 사수할 때에도 전체학우들의 식비가 전하안들만큼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상자가 없지는 기자의 질문에 이기현위원장은 "조사해본 결과 1천3백여명이 넘는 기자의 집에서 뛰어나려 1백5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대협을 사수하려는 전국 백만학도의 의지가 표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신장호군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 기자의 질문에 이것은 신장호군을 숨지게 한 매국세력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용성총련 차원에서 신장호군 추모사업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대유공전 자체내에서 추적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이기현 위원장의 눈빛엔 기필코 매국세력을 분쇄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신장호군의 유가족, 광주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이 어우러져 있었다. (끝)

광주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해마다 오월이면 학원가는 온통 광주로 쏠린다. 내가 대학에 첫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많은 학우들의 대열속에 서 스크립을 잡고 스스럼없이 어슬픈 구호를 한줄 한줄 되새기던 때도 바로

선명히 하고 다가왔다. 후배들에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독재자의 폭정에 고혈을 솟아내는 민중을 이야기 할때도 나는 10년전 광주를, 그리고 망월동 묘역의 산배 열사를 이야기 하곤 하였다.

이제는 단지 광주가 10년전 2천여 광주 애국 영령의 피흘림으로, 그리고 억압과 박해의 상징으로 박제된 표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예측을 거부하고 독재의 사슬을 허물지 않은 4천만 민중의 한성이

불계 물든 오월의 하늘

대학문에 첫발을 내딛고 어슬픈 구호를 되새기던 때도 과동료들과 민중을 이야기하고 조국을 생각했던 곳도 바로 오월의 하늘아래였다

우리 청년 학생에게 있어 최고의 행사이며 자랑스러운 축제인 제4기 전대협 출범식이 빛고를 광주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전국에 5만4천의 전경을 투입, 행사를 원천봉쇄하고 우리들의 광주행사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

회기등에서 약4백여명의 서천광 학우들이 먼저 광주로 4~5명이 한조가 되어 출발하였다.

서울, 수원, 광복, 천안, 공주, 논산으로 이어지는 정말 험준한 행군중 수차례의 검문검색을 무시하 통과후 논산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논산에서는 논산농민회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도움으로 광주행 기차를 탈수 있었고 그속에서 이미 전경들의 원천봉쇄는 무용지물이 되었구나 하는것을 직감으로 알수 있었다.

기차는 위험하다는 예상을 깨고 약6백여 학우들이 팍팍 들어차 있었고 출범식 사수에 대한 신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원천봉쇄를 뚫고 모인 학우는 3~4만 실로 엄청난 결사의 자세가 아닐수 없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음이고 광주가 살아 있음이었다. 출범식날 행

정기가...



김 중 신
<유전 4>

오월의 광주를 외치던 그날이었고, 과동료들과 통일광장, 진달래 동산을 오르내리며 민중을 이야기하고, 조국을 이야기하던 곳도 바로 오월의 하늘아래였다.

그후로 매년 오월의 하늘은 내겐 피와 절규로, 사무치는 분노로 그 색깔을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돼.....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로 걸으라는
어미게의 가르침—
우리 함께 생각해볼 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어른들의 숭수수범입니다.

